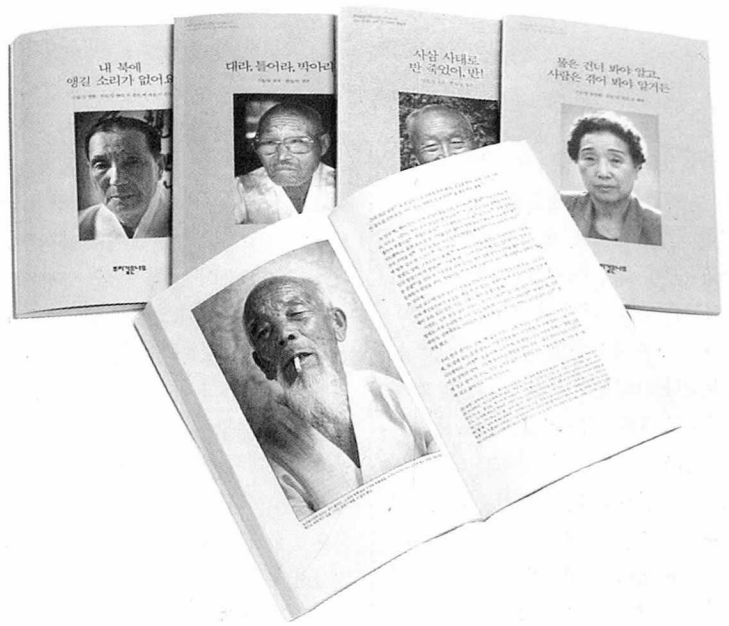
口述로 복원한 民草의 삶과 언어

'뿌리깊은나무 민중자서전' 5권 새로 나와



산업사회 도래 이전의 '마지막 노인'들이 자신들의 한평생을 구술한 '민중자서전'.

"이름없는 민중이 '입으로 쓴' 자서전"을 표방하며 뿌리깊은나무(대표 한창기)가 1981년부터 펴내고 있는 '뿌리깊은나무 민중자서전' 3차분 5권(제11~15권)이 최근 간행됐다.

「내 북에 앵길 소리가 없어요」「그때는 고롱고롬 돼 있제」「대라, 틀어라, 박아라!」「사삼 사태로 반 죽었어, 반!」「물은 건너봐야 알고, 사람은 겪어봐야 알거든」 등이 그것으로, 이 책들은 우리나라에선 처음 시도되는 自述傳記 기록체계로서의 '口碑역사'(Oral History)를 지향하는 공통된 특징을 갖는다. 그같은 구비역사로의 지향을 위해 이 책들은 ①노인일 것 ②가능하면 현대교육과 인연이 먼 문맹자일 것 ③그래서 언어체계가 활자언론과 방송의 영향을 되도록 덜 받았을 것 ④가능하면 전통적인 생업과 예능에 종사했을 것 ⑤유명하지 않은 이름없는 사람들일 것 같은 '까다로운' 조건들을 충족시키는 주인공들을 선정, 그들이 입으로 털어놓는 '나의 일생'을 녹음하고 글로 옮겨 편집함으로써, 산업사회 도래 이전의 '마지막 노인'들로 대표되는 우리들 삶의 모습을 그 밑뿌리로부터 드러내고 있다.

이름없는 민중이 '입으로 쓴' 자서전

한편으로 이 민중자서전은 구성에서도 매우 독특한데, 노인들의 구술을 그대로 轉寫한 본문과 함께 그 본문의 1/3 가량 되는 방대한 주석을 달아 방언과 고어에 익숙치 않은 현대인들의 이해를 돕고 있고, 또한 각권에는 주인공의 말과 말투, 그리고 생업과 세상살이를 분석하고 관찰한 글들을 함께 실어 학술자료로서의 가치도 돋보인다는 평판을 받고 있다.

이중 「내 북에 앵길 소리가 없어요」는 무형문화재 제59호 판소리 鼓法의 예능 보유자로 지난 89년 타계한 김명환이 그 주인공으로, 살아 생전 그의 제자들이 정리해둔 녹음자료를 바탕으로 편집했다. 한평생 북통을 끌어안고 산 생애와 북 수업과정, 그와 교유했던 명창들의 이야기, 그리고 판소리와 고법의 이론들이 구수한 육성으로 생생하게 엮어져 "치라는 북은 치지 않고 쇠가죽만 보듬고 앉았다"고 경지에 못 이른 북을 질타하며 "금처럼 닳을지언정 부러지거나 깨지지 않는 탱자나무 북채 하나로" 고집스레 살아온 전통예인의 세계를 엿보게 한다.

「그때는 고롱고롬 돼 있제」는 부인을 잃고 의지할 데 없어 아들 찾아 의정부에 올라와 7년째 전세살이중인 벌교 농부 이봉원의 한평생이야기. 가난한 농부의 자식으로 태어나 양친을 여의고 어릴 때부터 농사일로 뼈가 굵어 소작농의 데릴사위로 들어가 농사를 짓는 한편, 남의 집 농사일을 거들며 순박하고 우직하게 살아온, 흙속에 묻혀 보낸 '조선농부'의 삶과 전통농사법의 과정이 남김없이 구술돼 있다.

「대라, 틀어라, 박아라!」는 1925년 강원도 정선에서 뗏목일을 처음 시작한 이래 40년간 남한강 뗏사공으로서의 일생을 보낸 송문옥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데, 이제는 사라져버린 풍속인 뗏목의 모든 것들, 가령 뗏목을 묶는 방법이라든가 모는 기술을 비롯해 정선 아우라지나루에서 서울 마포나루에 이르는 한강물길 등이 그의 구술을 통해 소상히 복원되고 있다.

격동의 시대 산 민초의 삶 담아

제주 중산간 농부 김승윤의 한평생이 제주토박이말로 구술돼 있는 「사삼사태로 반 죽었어, 반!」은 제주말의 특성상 구술 전체를 표준어로 직역하여 본문과 나란히 싣고 있는 점이 특징. 한라산 중산간의 마을 명도암에서 마소를 방목하고 척박한 땅을 일구며 전형적인 제주민중의 삶을 살아온 이야기가 펼쳐지는데, 특히 온마을이 불타 입산까지 하는 등 제주사람들의 가슴에 혹독한 시련을 안겨준 이른바 '4·3사태' 체험담이 절절하게 회고돼 있어 우리 현대사의 아물지 못한 환부를 드러내고 있다.

「물은 건너봐야 알고, 사람은 겪어봐야 알거든」은 「내 북에 앵길…」의 주인공 김명환이 "선생 잡아먹은 솜씨"라고 극찬한 바 있는 가야금 명인 함동정월이 자신의 한평생을 강진 토박이말로 구술한 것. 천대받는 예인집안의 딸로 태어나 어린나이에 권번의 수업을 거쳐 기생이 된 뒤로 십대에 이미 명인 소리를 듣던 시절의 이야기를 비롯해서 출중한 미색과 재주탓으로 겪어야 했던 거칠고 비속한 세파와의 부대낌 등이 솔직하게 술회되고 있는데, 함씨 개인의 굴곡 많은 생애가 마치 우리 전통예술의 영욕의 역사를 반영하듯 애절하게 펼쳐져 있다.

근대와 현대를 잇는 격동의 시대를 산 이땅의 민초들이 거짓없이 털어놓는 그들의 한평생을 육성 그대로 채록·정리함으로써 우리 민중사를 떠받치는 보편적인 삶의 방식과 언어의 실체를 복원해 보이고 있는 이 '민중자서전' 시리즈는, 한편으로 주식회사 미원의 지원을 받아 출간되고 있다는 점도 특징.

脫手作業 선언!!

완벽한 페이지 조판

민기획 전산조판을 이용하시면, 대지작업에 소요되는 人力과 時間을 줄일 수 있습니다.

編輯教育을 받은 오퍼레이터
良質의 組版物
出版社의 대만족

전화연락을 주시면 민기획 專用의 『電算組版活字體』 카탈로그를 가지고 찾아가 뵙겠습니다.

한국컴퓨그래피의 入力編輯機 PHOENIX-2000 32대, HCG-8305 1대, 레이저프린터 LASERSETTER-4000〈400 dpi〉 1대, LASERSETTER-COMPOSE〈600 dpi〉 1대, 出力機 NEWSSETTER〈IBX〉 1대, 現像機 TRISTAR 1대

Total Publishing

출판에 관한 모든 공정을 대행하여 드립니다.

원고 집필/원서 번역 — 표지 디자인 — 교정

기획 — 원고 — 편집·레이아웃 — 조판 — 제판·인쇄 — 제본

광 고

민기획

100-282
서울특별시 중구 인현동 2가 192-30 (신성 Bldg. 318호)
TEL. (02) 277-6077, 6078 277-1038, 1039
FAX. (02) 277-6101